



2021년 3월 5일
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
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

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17 차) - 일본정부의 「긴급사태선언(제 2 회)」의 재연장에 따라서 -

금일, 일본정부로부터, 「긴급사태선언(제 2 회)」의 재연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, 사이타마교구로서는, 지금까지의 방침에 따라 (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의 「감염증대응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대응한다), 대응 (제 15 차)를 지속하겠습니다.

「행정부에 의한 긴급사태선언이나 영업/이동의 자숙요청이 있을 경우, 신자들이 참가하는 미사는 중지한다」라는 대응에 따릅니다.

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(현시점에서는 3월 21 일),
교구전역에 있어, 「대응 제 15 차」를 지속합니다.
또한 해제일자가 그 보다 빠를 시에는 후차의 「대응」을 발표하겠습니다.

길어지는 이 시련 속에서, 모든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, 계속하여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서로 하나되어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
-
- 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공개미사 (주일, 평일미사) 를 중지 합니다.
 - 주일미사 참례 의무도 교구내의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, 계속하여 면제 합니다.
 - 교회활동도 각 성당운영에 관한 최소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 중지하여 주십시오.

이상